'세일의 덫'에 걸린 화장품 업체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경제부 기자>

"어차피 세일 할거면 처음부터 그 가격으로 팔지 괜히 처음 산 사람만 속상하게…"

한 화장품 광고에서 지적하듯 최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할인 경쟁은 치열하다. 업체들은 정기 할인·캠버스 세일 등 이름표만 바꿔가며 할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또 세일을 하지 않으면 '1+1' 행사 등 진행해 사실상 반값 할인은 일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미샤 등 주요 5개 화장품 업체의 연간 할인 일수는 2011년 107일에서 지난해 240일, 올해는 9월까지 252일에 달했다. 할인폭도 10~20%에서 최근 들어서는 50%가 일반화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가격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연중 세일을 하는 걸 보면 가격 거품이 얼마나 심할까 의심이 든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 값을 주고 사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애초에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세일을 통해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신과 '제 살 깎아 먹기'식의 출혈 경쟁은 결국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거침없이 성장하던 브랜드숍들이 저조한 성장을 보이며 정체 위기를 맞은 것.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 저가 화장품 업계가 오늘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간단하다.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1일 윤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검찰관과 윤씨의 경매 방해 등 비리 혐의에 관여한 전직 기업 임원 등 3명은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김승호기자

원전 이어 무기 너마저!

전차·헬기 등 34개 부품·원자재 납품업체 3년간 시험성적서 125건 위·변조

군수품 납품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조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684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34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125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차, 자주포, 헬기 등 무기나 군용 장비에 쓰이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23개 업체 103건에 달했다.

A업체는 구난전차 부품인 브래킷 등을 주 계약업체에 납품하면서 무려 5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 수리온에도 불량부품 충격

B업체는 K-9 자주포 등에 쓰이는 장연판 등을 납품하면서 9건의 시험성적서를, C업체는 수리온 기동헬기에 쓰이는 와이퍼조립체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2건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변조했다.

K55A1 자주포, K-1·K-2 전차, M48 전차, K-10 탄약운반차 등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주 계약업체에 공급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체도 있었다.

주 계약업체로 식품이나 피복류 등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는 11개 업체 22건이었다.

최창곤 기품원장은 "납품업체들의 안일한 태도는 군수품의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장비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준기자 mik.m@metroseoul.co.kr

표정 엇갈린 여야 황우여(오른쪽)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비공개 회담을 열어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통과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대화점을 찾지 못했다. /뉴시스

예산안 지각처리 올해도?

민주 의사일정 보이콧 국회 결산심사 올스톱

특검·총동보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기국회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 민주 "청문회만 참여키로"

민주당은 지난 8일 회시 일정을 전면 거부한 뒤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3일까지 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결국 국회의 결산심사도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나흘간 결산소위를 가동해 201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측의 심사 거부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결산심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위는 "의사 일정이 더 늦어지면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은 고사하고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 의혹 '쌍끌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도 내비쳐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진기자

뉴스 & 뉴스

오전엔 울음 오후엔 스마일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논란으로 소동이 빚었다. /뉴시스

"김진태 장남 KOICA 탈락 건강 아닌 성적탓"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남이 군 대체복무를 위해 지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서 최종 탈락한 이유가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면접 성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KOICA에 문의한 결과 신체검사와 상관없이 경력이나 전공이 지원 분야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시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1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58개 철도역 중 폐쇄형 흡연실 동대구역뿐

● 전국 대부분 철도역에 흡연실이 없어 승객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전국 58개 주요 철도역 가운데 칸막이로 막은 폐쇄형 흡연실이 마련된 곳은 동대구역(면적 18㎡) 1곳뿐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철도역 승강장이나 역사 내부 전 구역이 금연 지역으로, 각 역에서는 역 광장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윤석열 중징계 청구…조영곤은 사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종결,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안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또 수사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부당 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지검장은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겠다"고 사퇴 의사를 전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9900원 항공권'의 진실

유류할증료 제외한 요금으로 허위광고 현혹 — 실제 요금은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가 승객이 실제로 내는 총 운임이 아닌 유류할증료 등을 제외한 대폭 축소된 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총액운임 자율 표시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액운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제할 총액이 처음 안내받은 가격보다 2배가 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사진)은 인천~홍콩 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로 편도 항공권을 최저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예상 총액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14만3000원이다.

티웨이항공 역시 김포~제주 노선 얼리버드 항공권 가격을 9900원부터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결제하는 금액은 2만6000원부터 시작된다.

이외 다른 항공사들도 총액운임은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글씨로 적어놓거나 아예 총액운임을 밝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싼 금액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홍콩!'이스타로 갈게요~늦힘해니까~'

노련한 워킹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3 액티브 시니어모델 선발 결선대회'에서 모델들이 워킹을 하고 있다. 50세 이상 남녀들로 이뤄진 이들은 최종 결선에서 통과하면 광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연합뉴스

목조 가옥이 쓰러진 듯 [illegible]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 중부 사마르 지역의 11일 초토화된 모습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필리핀 한인 19명 연락두절

정부, 내일 구조대 급파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1만여 명이 숨진 필리핀 레이테섬에서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30여 명 가운데 13명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11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타클로반 등 레이테섬의 태풍 피해지역 내 한국인 가족을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근 사마르 지역에도 한국인 여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국인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한국대사관은 현지에 영사와 행정원을 파견한 데 이어 대사관 직원 1명을 추가로 급파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13일께 타클로반 피해 지역에 구조대를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지 숙박시설과 교통편을 확보하기 위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조선미기자 seonmi@

차량용 블랙박스 68% 'KS기준 미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의 68%가 KS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시장점유율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방촬영 전용(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 21개 업체 31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번호판 식별성, 시야각 등 주요 성능이 KS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능 확인 결과 DR380-HD(피타소프트), AC1(코원시스템), FX500 패하(딩크웨어), ITB-100HD SP(아이트로닉스), AW1(코원시스템), TGB-F1(신보컴퓨터) 등 6개 제품은 번호판 식별성과 밝기 적응성 등 영상 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적으며 내환경성(진동·충격·고온 작동) 측면에서 이상이 없었다.

반면에 가격이 약 28만원으로 가장 비싼 '구안온텍'의 'LK-7900HD ACE' 제품은 진동시험 실시 결과 거치대가 파손돼 KS 기준에 미달했다. 또 메모리 사용량(52MB/분)은 평균치(약 6MB/분)보다 많았지만 GPS, 고온차단 기능 등 부가 기능이 포함돼 있고, 주·야간 번호판 식별성과 시야각, 초당 저장 화면 수 등의 측면에서는 우수했다. /장규필기자 jenis@

KT 세번째 압수수색…이석채 소환 초읽기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KT 사무실과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13곳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KT의 서초 사옥과 관계사, 계열사 및 임원 주거지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 중 1곳은 앞서 1~2차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확보한 곳이며 나머지 12곳은 처음 압수수색을 나간 곳이다.

검찰은 이들 KT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에서 사옥 매각 및 계열사 주식 매입 인수 과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T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회사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 중이다. KT에서 임금 복지 업무를 맡은 임원 신모씨와 이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3년간 근무했던 심모 상무, KT OIC의 황모 대표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자료 검토, 참고인 조사가 일단락되면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 배임 혐의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민기자 b@

학교폭력 시민네트워크 출범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수원 장안구 조원동 교육청 대강당에서 수원지방검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멈춰 시민네트워크' 발대식을 열었다. '학교폭력 멈춰'는 학생들이 멈춰·알려·상담이 지킴이 등의 역할을 익혀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피해를 입은 친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벽산2단지' 커뮤니티 대상

서울시 금천구 벽산2단지가 2013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우수 사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벽산2단지는 옥상 상자텃밭을 통해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단계와 관심 있는 입주민, 인근 주민이 공동 작업으로 이웃 간 벽을 허무는 화합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서구 환경미화원 지원 폭주

환경미화원이 뛰어난 숙·구직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 4~6일 환경미화원 공개 접수결과 8명 모집에 76명이 지원해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2명, 30대가 25명, 50대도 9명이 지원했으며 여성 지원자는 없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스탈린, 트로츠키 축출해 전권 획득

1927년 11월 12일 레닌이 죽은 소련 공산당의 두뇌였던 트로츠키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스탈린은 [illegible] 수천만 명을 처형한 [illegible] 인물이었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니 도쿄여행이 더 알차지다!

"도쿄여행 TIP~!!!!"

"김포-하네다 노선을 이용하니 다른 노선보다 2시간 넘게 절약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체크아웃 후, 신주쿠에 있는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단기 여행은 무엇보다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공항에서 항공노선을 택할지도 중요해요." (사전원정대 박진주 김수민)

※ 사전원정대의 도쿄여행 스토리는 한국공항공사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김포-하네다 취항 10주년 캠페인
'하네다 원정대' 모집~! 사연 응모하고 도쿄여행 가자!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1월 30일 김포-하네다 노선 취항 10주년을 맞이 총 10명의 '하네다 원정대'를 선발하여 도쿄 투어의 기회를 드립니다 '하네다 원정대'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이용해 도쿄를 방문하여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여행기를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집기간	~ 11월 16일(토) 까지
모집방법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에서 온라인 접수
당첨자 발표	2013년 11월 20일(수) 공사 홈페이지
응모자격	원정출정식(13.11.29(금))에 출국이 가능한 자 / 국내 SNS,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 /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도쿄 여행자들에게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은 여행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서울과 도쿄의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은 두 도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77.90	502.94	2.94	1072.00
(-7.57)	(-12.80)	(+0.07)	(+7.50)

뉴스 & 뉴스

시총 상위 20곳 쏠림 심화

● 주식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20개사의 비중이 50.60%로 지난해 말보다 0.37%포인트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비중은 2010년 말 47.91%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다. 종목별로는 지난해 말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에 들지 못했던 네이버가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삼성화재와 하나금융지주도 나란히 17위와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국명기자

증권사 5곳중 2곳이 적자

● 올 상반기(4~9월) 증권사 5곳 중 2곳 이상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62개 증권사 가운데 26개(41.9%) 증권사가 기록한 적자 규모는 총 1921억원이었다. 나머지 36개 증권사는 4437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들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2516억원으로 전년 동기(6745억원)보다 62.6% 감소했다. 판관비가 줄었으나 금리 상승으로 채권 관련 이익이 줄어들면서 순익이 급감했다. /김현정기자

CJ E&M "게임사업 계속"

● CJ E&M이 게임 사업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CJ E&M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CJ E&M은 게임 부문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게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J E&M 게임 부문의 일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이 '게임 사업 철수'로 잘못 알려지는 해프닝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가 자회사인 CJ게임즈에 대해 외부 투자 유치를 검토 중인 이유는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로 올해 말까지 CJ게임즈의 자회사(CJ㈜의 증손회사)인 애니파크, 씨드나인게임즈, 누리엔소프트, CJ게임랩의 지분을 100% 인수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박상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254-2820
독자센터 02)721-9715

달라진 네이버…화면이동 않고 다 한다

이젠 네이버에서 화면 이동 없이 일정 할 일, 메모, 연락처, N드라이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포털 업체 네이버는 전자우편, 달력, 클라우드 기능을 포함하는 웹 서비스에 위젯 '할 일 보기' 항목을 추가해 업무 활용도를 높이는 개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e메일 서비스와 달력 서비스는 화면 오른쪽 위에 일정, 할 일, 메모, 연락처, N드라이브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젯(도구모음) 기능을 추가했다. 달력(캘린더) 서비스에는 '할 일 보기' 등 단계에 진행 상태별로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서비스 화면 구성도 다양해졌다. 기본 스킨 5종 외에 디자인된 스킨 10종을 새로 추가해 '나만의 디자인'을 연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국명기자 kmlee@

노후대비 '웰다잉 금융' 가입부터

한국인 생애 의료비 절반이 65세 이후에 발생
상조예적금·간병보험 등으로 임종비용 준비

금융가 사람들

■ 우리금융 이새롬 연구원

노후 준비 하면 은퇴자금 마련만 생각하기 쉽지만 '잘 죽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법을 마련해놓는 것도 필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이새롬(사진)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웰다잉(well-dying)'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가치있게 마무리하려면 자신의 임종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비하는 재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나 관 속에 누워서 죽는 경험을 해보는 '임종체험' 등 대부분 비재무적인 영역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웰다잉을 재무적으로 미리 준비해놓아야 사망 전후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말기암 등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 등 이에 따른 비용이 사망 직전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생애 의료비에서 65세 이후 발생하는 비용이 남성은 46.6%, 여성은 52.5%에 달했다.

이 연구원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말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웰다잉이 문화적으로 자리잡은 외국에서는 노인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지, 아니면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을지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미리 고려해 금융 솔루션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솔루션에는 사전 장례와 관련한 상조 예·적금, 상조 보험이나 의료·기부 희망 상속 등을 다루는 금융 상품이 속한다.

최근 새로운 웰다잉 금융 상품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간병보험의 경우 2008년 공적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공적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민영 간병보험 시장이 열렸다.

상속 금융 상품 중에는 유언대용신탁이 새로 출시됐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유산을 신탁에 맡기면 사망 전까진 이를 굴려서 낸 수익을 은퇴자금으로 준다. 사망 후엔 유언장대로 상속을 진행한다.

이 연구원은 "공적 건강보험의 기능이 강한 한국에서는 웰다잉 서비스에 대한 보험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며 "100세 시대에는 60세에 은퇴한 뒤 4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kim1@metroseoul.co.kr

코스닥 어닝 쇼크… 2% 넘게 급락 11일 코스닥지수가 12.80포인트(2.48%) 내린 502.94를 나타냈다. 기관의 대규모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세 둔화, 실적 부진에 따른 부담 등이 급락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동부그룹·한진그룹 금감원서 집중관리

금융 당국이 경영 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동부그룹과 한진그룹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선정한 주채무계열 30개사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은 동부, STX, 대한전선, 한진, 금호, 성동조선 등 6개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STX,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3곳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고 금호는 워크아웃을 맺었다. 나머지 동부와 한진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남은 대기업은 동부와 한진밖에 없어서 약정 이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들 두 기업은 지난해부터 자산 매각 등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결과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만큼 새로운 개선안을 통해 이들 기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롤러코스터 장세는 'ETF 장세'

불안한 주식형펀드서 이동
올조보자 순자산 23% 늘어

코스피가 2050선에서 1970선을 기파르게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 펀드 가입자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수 추종형 펀드의 전망을 밝게 봤다.

불안한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를 늘리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몸집도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상장지수펀드(ETF)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ETF의 순자산 규모는 18조7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말과 비교할 때 4.36%, 올해 초보다는 23.1%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55조8700억원으로 연초 대비 3.45% 줄어들었다. 전달 대비로는 2.19% 감소한 액수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펀드 투자자들이 주식형에서 ETF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됐다. ETF는 운용 보수가 다른 펀드에 비해 저렴하고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한 차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며 코스피 추종형 펀드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으로 봤다.

곽현석 현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1980선 아래로까지 밀렸으니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다"며 "향후 한 번 더 상승 국면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덱스펀드(ETF 포함)에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주형 동양증권 연구원은 "매매 타이밍으로 봤을 때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 지수형 ETF에 투자할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세상을 바꾸는 '비닐 화장실' 창조경제

30일까지 이화여대서 '스웨덴 혁신기업' 소개 프로젝트 열려

전 세계 10억 명이 화장실을 편하게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은 물론이고 공터다 개울에 실례를 봐야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문제는 14.5%에 해당하는 지구촌 인구가 자신의 대소변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콜레라 등이 지금도 후진국에서 창궐하는 이유다.

그런데 스웨덴의 '피푸플'이라는 기업이 '피푸'라는 1회용 비닐 봉투를 만들면서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피푸플은 대변을 거름으로 만드는 비닐을 개발해 집안에서 배변을 해결하도록 했다.

12시간 동안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2주가 지나면 거름으로 변한 배변을 팔 수도 있다.

또 다른 스웨덴 회사 '싸이듐'은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자전거를 팔고 있다. 조개 모양의 스크린에 구글 스트리트 뷰 영상을 띄우고 자전거에 탑승한 환자가 페달을 굴리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원리다.

자전거 페달을 움직이는 자세로 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향, 유년기를 보낸 곳 등지를 직접 선택해 하이킹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

스웨덴 대표 브랜드 볼보의 자회사이자 스웨덴 고텐부르크대의 벤처기업이기도 한 아이테크는 비디를 지킬 수 있는 화학 약물로 유명하다.

대형 선박은 움직일 때는 물론이고 정박 중일 때도 따개비와 같은 물질이 들러붙는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이 배의 연비를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린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다수 선주들이 중금속 함량이 높은 전용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 해양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아이테크는 '셀렉토프'라는 화학물질을 개발해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11~30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스웨덴 혁신 기업을 소개하는 '이노베이티브 스웨덴 프로젝트'를 연다.

스웨덴의 20여 개 중소기업과 창조경제 대학, 첨단 기술, 여성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스웨덴 영화 최신작 7편을 선보이는 스웨덴 영화제도 병행한다. 관람료는 무료.

라르스 다니엘손 스웨덴 대사는 "최근에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듯 스웨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국가 동력으로 여겨왔다. 전 세계에서 인구 비중이 0.15%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기술 주도 국가가 된 배경을 이곳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전문대 '취업 1위' 유아교육 일반대선 의학계열이 최고

● 전문대 취업률 1위 학과는 유아교육, 일반대학은 의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시민단체 교육부의 취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 취업률이 61.2%로 대학 취업률 55.6%를 크게 앞질렀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과 지난 2월 졸업한 전국 552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5142명의 취업 상황을 조사해 발표한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를 바탕으로 했다.

전문대 취업률은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상승했다.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69.7%에서 68.9%로, 대학은 56.2%에서 55.6%로 감소됐지만 전문대는 60.8%에서 61.2%로 증가한 것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유아교육'(82.3%)과 '유럽 거리어'(79.5%) 학과에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일반대학교에서는 '의학'(86.1%)과 '치의학'(84.3%) 등 의학계열이 강세였다. /한용섭기자

게임빌 3분기 매출만 증가

● 국내 대표 모바일게임사 게임빌이 1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외형은 커졌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다.

게임빌은 3분기 실적집계 결과 매출 210억원, 영업이익 19억원, 당기순이익 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6.4% 늘어났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5.2%와 63.3% 감소됐다.

해외시장에서 선전해 매출은 늘었지만 로열티 증가와 우수 인재 확보 등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게임빌은 최근 컴투스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 게임간 크로스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현대·기아차 누적 생산 8000만대 돌파

현대·기아차가 완성차 누적 생산 대수 8000만 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창사 이래 지난 10월까지 국내 및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8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누적 생산 8000만 대 돌파는 현대차가 창사 이듬해인 1968년 울산공장에서 코티나 차종 556대를 생산하고, 기아차가 1962년 수제 삼륜차에서 국내 최초의 3륜 화물차인 K-360을 생산한 지 50여 년 만에 이룬 성과다.

현대·기아차의 누적생산 대수가 8000만 대를 돌파한 11일 수출용 자동차로 꽉찬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기아차는 지난 1993년 누적 생산 1000만 대를 돌파하기까지 30여 년이 걸렸지만, 2000만 대는 1000만 대를 돌파한 지 불과 6년 만인 1999년에 달성했다.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펼친 결과 생산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해 2003년 3000만 대, 2006년 4000만 대, 2009년 5000만 대를 차례로 달성했으며, 2012년 7000만 대에서 이번 8000만 대까지는 만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펼쳐 놓으면 서울 다덮고 일렬 세우면 지구 9바퀴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생산한 8000만 대는 현대차 베스트셀링 모델인 아반떼를 한 줄(전장 4550mm, 전폭 1775mm 기준)로 세울 경우 약 36만4000km로 지구를 9바퀴 돌 수 있으며, 펼쳐 놓을 경우 약 646.1㎢로 서울시 면적(605㎢)을 덮고도 남는다.

8000만 대 중 가장 많이 생산된 모델은 아반떼로 1990년 엘란트라로 출시된 이후 910만 대가 생산됐으며 쏘나타가 673만 대, 엑센트가 663만 대로 뒤를 이었다.

/김민혁기자 [illegible]

하이브리드렌지 사면 17만원짜리 선물 증정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리홈쿠첸 본사에서 모델이 하이브리드렌지 제품 및 이벤트 경품을 소개하고 있다. 리홈쿠첸은 다음달 말까지 자사의 하이브리드렌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7만원 상당의 뚝배기, 전골냄비, 프라이팬 등 3종 네오클램 조리기구 세트를 무료로 증정한다. /리홈쿠첸 제공

채용면접시 '질문 공세' 세졌다

인사담당자 63% "문항 늘려"

채용 과정에서 면접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질문 개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인사담당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3%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면접 질문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늘어남'이 40.6%로 가장 많았고 '업무 역량의 적합성 또는 뛰어난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늘어남'(39.1%)이 뒤를 이었다. '거짓말이 있는지 의심하는 질문이 늘어남'(14.5%), '지원자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추가 질문이 생김'(5.8%) 등을 꼽은 인사담당자도 있었다.

합숙 면접, 자기 PR 등 면접 전형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려면 필요하다'도 41.3%에 달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은 10.1%에 불과했다.

/이국명기자 kml@[illegible]

매년 1000억대 소멸 '카드 포인트' 손본다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포인트 운영 체계를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신제윤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카드 포인트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 중 포인트 적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8%(잔액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포인트 유효 기간인 5년이 지나 카드사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소멸 포인트가 매년 1000억원 규모다. /김현정기자

해킹 취약한 홈피 공개한다

미래부, 기업 인터넷 서비스 취약점 분석·평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해킹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각종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파밍 등 전자 금융사기와 같은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평가해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사이버 위협 취약점 평가는 서비스 이용 빈도, 국민 생활 영향력, 침해 사고 시 파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점검 대상 기업에는 취약점 분석 방법·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한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웹페이지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뿐만 아니라 액티브X(ActiveX)와 같이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안전성 여부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례적으로 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서희정기자

폰 판매사이트 '숨바꼭질'

방통위 온라인상 보조금 감시 강화에 쪽지·전화 등 변종 영업 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강력 제재에 온라인 판매 시장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사이트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방통위가 최근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력 제재를 예고하며 온라인상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을 밝히자 이 같은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뽐뿌, 뉴버스폰 등 유명 휴대전화 공동구매 사이트가 알려지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이곳을 통해 홍보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거나 이동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위키폰'이나 '호갱님 우리 호갱님', '폰싸' 등이다. 이들은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자 온라인을 통해 홍보한 뒤 오프라인상으로 직접 해당 대리점 및 판매점을 내방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개통시켜준다.

또 온라인상에는 보조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고 홍보한 뒤 전화나 쪽지를 통해 보조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호갱님 우리 호갱님의 경우 앱을 설치하면 전국에서 가장 싸게 대리점 내방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곳의 지표를 주시 알림으로 안내한다.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최저가 내방정책 공구가 떴을 때 안내받을 수도 있다. 위키폰은 회원을 대상으로 폰싸는 쪽지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처럼 지급되는 보조금은 당연 현재 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한 온라인 판매자는 "우리도 대형 유통점, 수많은 대리점 및 판매점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만큼 이 같은 판매 행위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며 "정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수록 새로운 형태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y0405@metroseoul.co.kr

61세부터 100세까지 암보장

라이나생명의 실버 상품 첫 가입연령 80세로 확대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하게 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현기자

겨울 필수품 '다운 패딩' 준비하세요 1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패딩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역점, 구로점 등 롯데마트 전국 70개 점포에서 판매하며 남녀 경량 다운점퍼가 5만9000원, 아동 패딩 점퍼가 2만9000원, 아동 패딩 조끼가 1만9000원이다. /뉴시스

지난달 ICT수출 사상최대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6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10월 ICT 수출은 162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ICT 무역수지도 84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했으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한 77억6000만 달러였다.

10월 ICT 수출은 휴대전화, 디지털TV(D-TV), 반도체, 이차전지 등 ICT 주요 품목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ICT 수입 역시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 90.9% 증가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이재영기자

kt금호렌터카 타면 지니 음악감상 무료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를 들으며 신나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kt금호렌터카(www.kt-kumhorent.com)는 음악 사이트 지니(Genie)와 '드라이빙할 때 지니 음악 들으세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kt금호렌터카 이용자 중 선착순 10만 명에게 고품질 음악 사이트 지니의 100회 무료 음악감상권을 제공한다.

이 중 30명을 추첨해 음원 공개와 동시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MBC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의 앨범도 선물할 예정이다. /이국현기자

수도권 분양시장 최대어' 위례신도시 이달 2525가구 분양… 당첨 전략은

서울거주자 두번의 기회

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 최대어로 단연 '위례신도시'가 꼽히는 가운데 연내 마지막 분양 물량으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위례신도시에서 3개 단지, 2525가구가 분양된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A2-11블록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이 12일 1·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데 이어,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중순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100% 계약 마감된 송파 와이즈 더샵 견본주택.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 자연앤 래미안 e편한세상'은 공공분양아파트로 전용면적 75~84㎡로 이뤄졌다. 전량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다만 같은 1순위의 무주택 세대주라도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따라서 청약 전에 무주택 세대주 기간, 납입 횟수 및 총액 등을 살펴보는 게 좋다.

또 지역우선 거주 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에 따라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된다. 이는 곧 높은 당첨 확률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지역 거주자라면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이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 '위례 아이파크2차'는 중대형으로 구성된 민간분양아파트다.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 금액이 차이를 보이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이다.

서울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서울시 거주자라면 우선청약과 수도권지역 두 번의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 당첨자 발표일만 같지 않다면 '힐스테이트', '아이파크2차' 양쪽에 청약 가능해 군이 1개 단지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년 초 하남에서 분양 예정인 A3-6A블록 '위례 엠코2차', A3-6B블록 '위례 신안'으로 눈을 돌려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나오는 물량이 입지가 좋은 데다 양도세 면제 혜택도 종료돼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신도시 입성 자체가 목적인 청약 대기자라면 내년 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남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래미안 강동팰리스'에 쏠린 눈 삼성물산이 오는 15일 래미안 강동팰리스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9~10월 이틀간 고객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남권 직주근접 입지와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관심이 집중되며 3000여 명의 고객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삼성물산 제공

59㎡ 순위내 마감 97%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59㎡의 순위 내 마감률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가 포함된 곳은 총 17개 단지, 31개 타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개 타입이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고 1순위 마감된 단지도 22곳에 달했다.

대곡지구, 세곡2지구, 서울강남지구 등 공공 물량은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이 밖에 공덕자이, 관악파크 푸르지오,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래미안 대치청실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도 1순위 마감되며 전용면적 59㎡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DMC가재울4구역,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즈힐, 관악파크 푸르지오 등 청약 당시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던 단지들도 전용면적 59㎡만은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서울에서 전용면적 59㎡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 물량이 적고, 입지가 양호하고, 분양가 총액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신평면 개발로 소형 아파트라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에 따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몰리면서 59㎡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선옥기자

5000만원

1인당 전세자금대출액 연소득 대비 97% 수준

급증세인 전세자금대출액은 통권 1인당 대출액은 약 5000만원이며 이들은 연간 227만원을 이자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세입자(9개 국내 은행 기준)의 1인당 대출액은 평균 약 5000만원으로, 연소득 대비 비율은 96.9%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11년 65.0%에서 2년여 새 껑충 뛰었다.

이들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인당 227만원으로 조사됐다.

비은행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세입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은 무려 213.8%에 달했다.

전셋값 고공 행진 여파에 건당 3000만원 넘는 고액 대출 비중은 77.7%나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전세자금 대출 중 서울(18조5000억원) 등 수도권이 68.5%(41조2000억원)를 점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중산층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한은이 추계한 전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60조1000억원으로, 3년6개월 전인 2009년 말(33조5000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차상위 20% 계층(4분위)이 22조3600억원(37.2%)에 달했고 중간 20% 계층(3분위)도 16조5300억원(27.5%)을 차지해 중산층 대출(64.7%)이 주를 이뤘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는 16.9%(10조150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약 11조600억원(18.4%)은 최하위 20%(1분위)와 차하위 20%(2분위)에 해당됐다. /김현정기자 hjkim1@

아파트 경매 3024건 '13년래 최대'

10월 기준 경기 1865건

경기 침체 속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법원 경매로 유입되는 물건 수도 늘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10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0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2362건보다도 28%나 증가한 것으로 이 회사가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3건, 경기가 1865건, 인천은 406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9월 1319건에 비해 41% 급증했고, 서울은 621건에서 21% 늘었다. 인천은 다소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거래 실종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유정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들 물건이 충분히 소진되기 전까지는 저가 낙찰되는 아파트로 인해 주택 시장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2년된 3DTV로 3D방송 못봐?

관련표준 지난해 초 확정
2012년 이전 구입한 제품
업그레이드 등 조치 필요

"우리 집 TV로도 3D 방송을 볼 수 있을까."

SBS가 10일부터 지상파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3D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이전에 출시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D TV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별도 셋톱박스를 구비해야 3D 영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제품은 홈페이지(www.samsung.com/sec)에서 펌웨어를 USB에 내려받은 뒤 TV에 연결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3D 방송을 볼 수 있다. 2011년 출시한 PDP 3D TV 일부 모델은 서비스센터에서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한다.

LG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셋톱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직 셋톱박스를 받지 못했다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3D 방송 표준이 지난해 1월에서야 '듀얼 스트림(dual-stream)'으로 확정되면서 이전에 나온 3D TV의 경우 업그레이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듀얼 스트림은 기존의 지상파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좌(左) 영상'과 2배로 압축한 '우(右) 영상' 신호를 동시에 송출해 일반 디지털 TV를 가진 가정에서는 2D로 시청하고 3D TV를 보유한 가정에서는 2D와 3D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다음 '달력+다이어리' 쏠 캘린더 앱 언어추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시장을 겨냥해 쏠캘린더 신규 언어를 추가했다.

11일 다음에 따르면 달력과 다이어리를 결합한 앱 쏠캘린더는 지난 9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출시됐다. 세련된 디자인, 현재 위치 날씨 정보 제공, 스티커를 이용한 일정 꾸미기 등이 특징이다.

다음은 쏠캘린더 이용자의 70%가 외국인일 정도로 세계 시장 반응이 좋자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터키어를 새롭게 추가했다. 일정 관리 기능을 매년, 매월, 매주, 매일 단위로 상세히 등록하게 했으며 반복 횟수나 종료일 등의 설정도 용이하게 했다. 쏠캘린더의 위젯 상 월별 이동도 가능하게 지원한다.

/정호희기자

'IT 집성촌'이 바뀐다

한컴부터 게임업체까지
판교밸리로 사옥이전 붐
대표SW기업 떠난 강남엔
소셜커머스들 속속 입주

"가자 남(南)으로!"

IT업계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는 IT기업의 이사철로도 불린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경기도 분당구 삼평동은 게임업계 집성촌으로 진화했다.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넥슨, 네오위즈, 엑스엘게임즈 등이 판교로 사옥을 옮겼거나 올해 안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랩과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업체도 판교에서 만날 수 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지난해 일찌감치 판교에 자리를 잡았다.

판교는 비싼 임대료의 강남, 외진 위치의 상암동과 가산·구로디지털단지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체지로 떠올랐다. 판교에 초창기 진출한 IT기업의 사업이 번창한 점도 입소문을 낳았다.

이 밖에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관련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엔씨소프트처럼 직접 사옥을 짓는 경우 성남시의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NHN엔터테인먼트(위)와 엔씨소프트의 판교 사옥 내부 모습.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눈길을 끈다

엔트리브소프트 윤용화 실장은 "게임사들끼리 모여있다 보니 동질감도 들고 협업이 잘된다"면서 "각종 유·무형의 혜택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IT기업들이 빠져나간 강남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채우고 있다.

쿠팡은 엔씨소프트가 사용하던 삼성동 빌딩으로 최근 이사했다. 송파구 잠실에 있던 티몬도 지난 추석 이후 삼성역 근처로 사옥을 옮겼다. 위메프는 20일 입주를 목표로 강남에 5층 규모 신사옥을 짓고 있다.

한편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IT기업 중 유일하게 강북행을 택해 시선을 모았다. 15년간의 강남 포스코센터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지난달 종로구 광화문 인근으로 확장 이전한 것이다. 한국MS는 사옥 이전을 통해 시무 공간을 늘리고, 사업 부진을 겪는 회사 분위기도 재쇄신한다는 입장이다.

/정용환기자 unlau@metroseoul.co.kr

필름카메라 닮은 즉석카메라 한국후지필름은 프리미엄 즉석카메라 '인스탁스 미니90'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중노출, 여러 촬영, 움직임이 많은 피사체를 촬영하기에 최적화된 키즈 모드 등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후지필름 제공

SKT-나모인터 '클라우드 웹트리' 공동개발

SK텔레콤은 웹 제작 소프트웨어업체 나모인터랙티브와 11일 '클라우드 웹트리'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들은 월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클라우드 웹트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웹사이트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연평균 600만원과 비교했을 때 8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양사는 '클라우드 웹트리'를 약정 기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고가의 운영 비용을 이유로 웹트리 사용에 부담감을 느꼈던 10개 미만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웹트리 사용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사는 '클라우드 웹트리'를 다음달 중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이며 내년 1분기부터 해외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자

코데즈컴바인 커플 속옷 레드·그린 두가지색 출시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가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커플 속옷 세트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부드러운 두께의 원단을 사용해 은은하게 비치는 란제리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이나 또한 검정색 밴드에 골드 컬러 로고로 포인트를 줬다. 색상은 레드·그린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전국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www.codes-combine.co.kr

'중학생 위한 교과서 소설' 천재교육 전집세트 할인

천재교육이 중학생을 위한 교과서 소설 전집을 출시한다.

전집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4종 국어 교과서 본문에 나온 소설 작품이 빠짐없이 수록돼 있다.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지식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했으며 어려운 어휘나 구절은 사진을 곁들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했다.

세트 가격은 4만4000원이며 출시 기념으로 1000세트에 한해 3만6000원에 판매한다.

'아웃도어 배낭' 그레고리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중

명품 아웃도어 배낭 브랜드 그레고리가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선물받은 그레고리 배낭을 메고 활동하는 일상을 블로그 및 SNS에 올려 그레고리를 홍보하면 된다.

20일까지 에코로바 블로그(blog.naver.com/echoroba01)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한 뒤 e메일(echoroba01@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요즘 소형가전 '디자인이 갑'

소비자 제품구입 기준인 인테리어 기능까지 겸비 소다스트림·화산스토리 세계적 디자인상 휩쓸어

세계 디자인상을 휩쓴 소형 가전제품들. 왼쪽부터 소다스트림의 '소스', 코웨이의 '화산 스토리 가습기', 휴롬의 원액기 2세대 모델.

소형가전 기업들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의 레드닷·IF, 미국의 IDEA를 비롯한 각종 어워드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중요시하는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제품 개발에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0년 전통의 탄산수 제조기 소다스트림의 '소스'는 유명 산업 디자이너 이브 베하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이브 베하는 환경보호 및 사회변화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명 디자이너다. 소스는 디자인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까지 배려된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코웨이는 미국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13'에서 총 9개 제품이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은상을 받은 '화산 스토리 가습기'는 전 세계의 유명 화산들을 디자인 모티브로 한 제품으로 동그란 도넛 형태로 수증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원액기 브랜드 휴롬이 최근 출시한 2세대 휴롬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 국내 최고의 디자인상인 '굿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새로운 조절 레버를 장착해 찌꺼기 배출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휴롬 원천 기술인 울템 소재의 스크루도 2중 스크루로 개선해 주스 착즙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소다스트림을 국내에 유통·수입하고 있는 밀텍산업의 황의경 대표는 "소형가전이 주방 인테리어를 좌우하는 잇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면서 기능은 물론 디자인에 주력하는 제품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며 "소다스트림의 경우 제품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각종 이슈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박선옥기자 pse@metroseoul.co.kr

하프클럽 '진짜 특가' 게릴라 홍보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하프클럽이 회원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11월 강남역 인근에서 '진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게릴라 이벤트에서는 유격 조교 복장을 한 홍보맨들이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하여 PT 체조와 반전 퍼포먼스 등을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선릉역·강남역·여의도역·사당역·신사역을 중심으로 11~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지원기자

'맛있는 강원도' 맛보세요

14~17일 양재 aT센터서 제2회 강원푸드박람회

(사)강원도민회중앙회는 강원농협, 강원일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회 강원푸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강원도 18개 시·군 및 식품업체들이 참여해 강원도의 식품을 홍보해 강원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한편 강원도 식품 산업에 대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강원도 18개 시·군 홍보관 ▲식품업체 홍보관 ▲사찰음식 홍보관 ▲전통주 및 전통시장 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바이어 구매 상담회, 사랑의 쌀독 기부 캠페인, 강원도 전통주 시음회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강원도 식품산업 관련 공공기관·대학교·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가해 강원도 식품 발전을 위한 기술 교류 촉진 및 협력 강화 등을 펼칠 예정이다.

박람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향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청정 강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재원기자

메마른 너, 그러다 늙어!

가을 모발·피부 보습 요령

/이랑라프시의 '비욘드' 제공

요즘같이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공기 중의 수분 함량이 낮아져 모발과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특히 직장인들이 오래 머무르는 사무실은 바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와 난방기 바람 등으로 인해 더욱 수분을 빼앗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므로 틈틈이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푸석한 모발엔 헤어전용 오일·에센스 발라야

바쁜 아침 시간에 머리카락을 완전하게 건조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직장인들의 경우, 사무실의 건조함과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모발이 더욱 푸석해지기 쉽다.

모발이 건조해지면 머리카락이 쉽게 끊어지거나 상하게 되고, 심할 경우 탈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모발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건조한 모발에는 헤어 오일이나 에센스를 발라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이때 모근 부분은 피해서 발라야 머리가 기름져 보이거나 뭉치지 않는다.

◆건조해진 얼굴에는 수시로 수분 공급

건조한 사무실에 장시간 있다 보면 얼굴이 건조해져 당기거나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피부의 수분 부족은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된다. 콜라겐이 손상돼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

민감한 사람은 피부 가려움증과 뾰루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피부의 수분 감소는 아침저녁 케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무실에서도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수시로 발라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건조해지는 손엔 세안 직후 고보습 제품으로 관리를

다른 부위에 비해 자주 씻게 돼 쉽게 건조해지는 손은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철에는 손뿐만 아니라 손톱 주변에 살이 일어나거나 손톱이 건조해질 수 있어 다른 때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손은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부위기 때문에 손을 씻고 난 후 다소 귀찮더라도 반드시 핸드크림과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정영재기자 sinna@

Music by Frank Wildhorn　Lyrics by Jack Murphy　Book by Norman Allen

당신의 눈을 의심할, 새로운 뮤지컬의 탄생

13.12.6~14.2.23 (프리뷰 12.4~12.5) LG아트센터

프리뷰 30% 할인 (12월 4일 ~ 12월 5일 공연한정 / 11월 8일 ~ 12월 3일 까지 예매 시)

바다 차지연 류정한 신성록 임혜영 이정화 최수형 에녹 외

갈치 가격 4년만에 최저

어획량 20% 증가했지만 日방사능 탓 소비 위축돼 롯데마트 등 반값 판촉전

국민 대표 생선인 갈치 가격이 최근 들어 4년 전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金(金)갈치'라 불리던 값이 무색해졌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갈치(4kg·상)의 가락시장 10월 평균 도매 가격은 8만9268원으로 작년보다 24.6% 하락했다.

이 같은 갈치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는 우선 어획량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서도 최근 5년간 1~9월 갈치 어획량이 매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어획량이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7월 이후 어획량은 작년보다 5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원전 사태에 따른 방사능 공포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부진한 것도 갈치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마트에서도 갈치 매출이 전년 대비 8월 11.5%, 9월 9.3%, 10월 33% 감소했다.

이런 이유로 8월 이후 갈치 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귀포 수협의 '제주 갈치'(10kg)의 9월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8만9420원에서 올해는 6만6200원으로 25%가량 하락했고, 성비기와 비교하면 30% 이상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제주산(産) 갈치'(냉동)를 시세 대비 최대 반값 수준에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삼성·KB국민카드로 결제 시 제주산 갈치 1마리를 중(230g 내외) 사이즈는 1900원에, 대(320g 내외) 사이즈는 4000원에, 특대(400g 내외) 사이즈는 75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이마트 서울 용산점은 13일까지 제주산 갈치를 기존 가격보다 43%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 /연합뉴스

무첨가 '원물 간식' 전성시대

정정원 고구마츄·올가 과일칩 등 100% 자연원료로 인기

과자나 음료와 같은 간식류에 과다하게 들어있는 설탕이나 첨가물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지적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물 그대로의 간식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아이를 둔 주부나 미용에 신경 쓰는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정원의 '고구마츄'는 신선한 고구마를 바로 쪄서 그대로 말린 제품이다. 고구마 본연의 단맛을 느낄 수 있으며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만을 사용해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도 안성맞춤이다. 100% 원물 건강 간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별다른 광고 없이도 출시 5개월 만에 7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대상 청정원의 유지영 과장은 "고구마츄의 생산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200%까지 생산 능력을 키우고, 내년에는 1000만 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가홀푸드의 '올가 친환경 과일칩 3종'은 국산 친환경 생과일을 그대로 동결 건조시켜 만든 건강 스낵이다. '올가 사과칩', '올가 배칩', '올가 딸기칩' 3종으로, 생과일을 기름에 튀기거나 굽지 않고 동결 건조시켰다. 과일 고유의 맛과 향은 물론 천연 식이섬유·무기질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 화학첨가제·합성착향료·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등 각종 화학 첨가물과 설탕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무첨가 천연 원료 트렌드는 음료 제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천연 이온음료로 주목받고 있는 '비타코코 코코넛워터'는 엄선된 그린 코코넛에서 얻은 100% 순수 코코넛 워터로 만들었다. 농축액을 희석시켜 만들거나 얼렸다 녹이는 등의 중간 과정 없이 신선한 코코넛 워터를 그대로 담았다. 설탕과 같은 인공감미료도 일절 첨가하지 않았다. 수분 공급 효과 외에도 피로 해소에 좋은 칼륨과 비타민 C, 전해질 등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무지방·무콜레스테롤이며 칼로리도 66kcal로 낮은 편이다. 지난 4월 국내 출시 후 5개월여 만에 3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진출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푸드는 국내 최초로 100% 우유만을 발효시켜 만든 '파스퇴르 오직 우유100%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요구르트'를 선보였다. 정부의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목장의 1등급 A 원유와 유산균만 넣어 순수한 자연의 맛과 홈메이드 요구르트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제품 한 병에 락토바실러스균을 비롯해 3종의 유산균이 500억 마리 이상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다. 설탕 등 당류가 전혀 첨가되지 않아 다이어트용으로도 적합하다. 기호에 따라 생과일이나 꿀을 넣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강강술래 주문땐 '짭짤한' 선물

김장철 맞아 천일염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입동 후 김장 준비를 서두르는 고객들을 위해 김장용 소금을 무료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ss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525-9292)을 통해 이달 말까지 대용량 한우 사골곰탕 선물세트(800ml 5팩, 15인분)는 3만7800원, 박스세트(800ml 10팩, 30인분)는 7만56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신송식품의 '신안바다천일염(1.5kg, 5000원)'을 사은품으로 준다.

신림점은 15일, 상계점은 22일까지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갯벌 천일염(3kg)을 공짜로 준다. 시흥점은 30일까지 2회 이상 방문 멤버십 고객에게 천일염(3kg) 무료 증정 쿠폰을 문자로 보내주며 신규 멤버십 가입 고객도 무료 증정한다.

서초점과 역삼점은 주말 가족 단위 방문 고객과 멤버십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소진 시까지 천일염(3kg)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출판그룹 길벗과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도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김후영의 질링 어휘서적 '유럽여행 핵심사전 500'과 하버드 정신과 의사 조셉 슈밴드가 말하는 분노 대처법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을 선물한다. /박지원기자

등산재킷 70% 싸고 구스다운 30% 저렴

아웃도어스, 쿠폰도 제공

패션 유통기업 (주)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아웃도어스는 12일 대대적인 쿠폰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웃도어스는 이날 단 하루 가을·겨울 시즌 의류 아이템을 최대 70% 할인하고, 30%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컬럼비아, EXR, 레드 캐스탐, 디두어, 스노우라인 등 등산·스포츠·골프 캠핑 등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컬럼비아의 경우 등산 재킷 이월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하고, 올해 신상 구스다운 재킷은 30% 할인 판매한다. 아크테릭스(ArcTeryx), 몬츄라(Montura), 캐나다구스 등은 아웃도어스 단독 제품으로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날 하루에 한해 전 상품 무료 배송이 이뤄지며, 아웃도어스 바로 가기 접속 구매 시 3% 추가 할인한다. 이 밖에 1만9900~6만9000원까지 균일가 대전, 1만원 쿠폰 할인, 카드사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www.outdoors.com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중년층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 염증, 퇴행성관절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중년층 이상이라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이 대부분이다.

◆중장년층 무릎 통증의 원인 '퇴행성관절염', 말기엔 '인공관절'만이 해답

무릎관절의 연골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닳아 없어지게 된다.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해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없어지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이런 증상을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라고 한다.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이 닳은 정도에 따라 초, 중, 말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중기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또 말기에 이르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기며 무릎이 붓고 심지어 다리 모양까지 O자형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80%에게 발생할 정도로 주변에서 보기 쉬운 질환이지만 말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도 걷기 어려울 정도다. 더욱이 말기에는 연골이 모두 닳아버린 상태로 약물을 이용한 치료나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적용하기는 이미 늦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이란 모두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관절로 바꿔주는 수술이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확보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는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최대 고민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만 시행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250만~300만 원이며 양측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약 500만원 정도가 든다. 또 수술 이후에 필요한 2~3주가량의 위원 기간에 따른 입원비와 간병비가 추가로 부담된다.

수술 전후에 필요한 검사 및 진료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600만~7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이다. 만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 관절염 환자에게 무료로 인공관절을 후원하는 '엄홍길휴먼재단'

이런 비용적인 문제로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아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통해 천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무료로 인공관절 수술을 후원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 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본인 혹은 주변 지인, 보호자가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을 전화(02-2272-8849)로 신청하면 된다.

엄홍길(사진)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지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공연장을 통해 신청

이대병원 송태진 교수 '국제뇌졸중학회 젊은 연구자상'

송태진(사진)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 교수가 내년 2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국제뇌졸중학회(ISC)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한다.

국제뇌졸중학회는 미국심장학회 및 미국뇌졸중학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뇌졸중과 관련된 최고 권위의 학회로 송 교수는 비판막성 심방세동을 가진 급성 뇌경색증 환자에서 뇌내 미세출혈의 분포와 정도에 따른 장기 사망률의 차이란 논문을 통해 뛰어난 연구 업적을 보인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됐다.

/황재용기자

강동경희대병원 '잇몸 강좌'

강동경희대병원은 동화약품과 함께 진행하는 '2013 잇몸 건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5일 병원 별관 강당에서 '잇몸지아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잇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좌는 ▲알고 싶은 치과 궁금증 ▲스트레스와 잇몸 건강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황재용기자

"멜로디힙합 실험… 내 안에 반항아 있다"

빅뱅의 태양(25)이 오랜 기다림 끝에 늘려온 음악 욕구를 분출시킨다. 3년 전부터 앨범을 구상해 2년 전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그는 발매 일정이 미뤄지면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음악 취향과 고집을 꺾지 않았다. 8일 선공개곡 '링가 링가'로 포문을 연 그는 연말 싱글 한 장을 더 내고 내년 초 정규 2집을 출시한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걱정도 컸겠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고 기다렸지만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무척 컸다. 언제 앨범을 발표할지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다 보니 아무것도 못 했다. 예정이다 연예 같은 자유로운 개인 활동을 아무것도 못 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양현석 사장님이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라 일찍이 말린 건 내 고집 탓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신인의 자세가 됐다. 마치 연습생 때처럼 다시 갈구하게 됐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길거리에 사과 상자 하나 올려놓고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다.

-'링가 링가'는 기존에 주로 해 오던 R&B와 다른 멜로디 힙합 성향이 짙다

지금 내게 가장 끌리는 음악이다. 데뷔 전 래퍼를 꿈꾸기도 했다. 물론 지드래곤과 함께 작업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더 강해졌을 것이다. 곡을 받고 하루 만에 녹음을 마쳤을 정도로 좋았다. 빅뱅 데뷔 후 줄곧 지드래곤의 음악을 노래했고, 나의 음악 스타일을 테디 형 다음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내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줬다.

-2집에 자작곡은 어느 정도 포함되나

6곡에 참여했다. 해외에서 좋아하는 프로듀서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었다. 미국의 유명 R&B 작곡가인 언더독스와의 작업이 발단이 돼 여러 뮤지션과 작업하게 됐다. 미국 프로듀서 페퍼 쉬레즈, 빅뱅과도 여러 차례 작업한 DJ 보이즈 노이즈 등도 참여했다.

-어떤 장르의 곡들이 담겼나

정말 다양한 음악을 담았다. R&B·힙합·일렉트로닉·발라드 등 성향의 곡 등이다. '링가 링가'는 이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은 곡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런 시도를 하면서 내 색깔을 입혀 나가는 게 뮤지션으로서 길게 볼 때 중요한 것 같다.

-4월에 조용필의 19집 '헬로'가 나왔을 때 특별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도 자신의 음악적 소신과 관련이 있다

선배님을 보면서 가수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며 답안을 얻었다. 과거에 선배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가수에 대한 나의 고민을 씻을 수 있었다.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분이다. 선배님의 마인드는 역시 킹 오브 K-팝답다. 또 가수와 팬이 가장 이상적인 만남은 무대 위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빅뱅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6곡 자작… 초심으로 돌아가
지드래곤에 음악외적 큰 영향
이제는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

-13세부터 함께 지내온 지드래곤은 가장 친한 동료이자 솔로 가수로서 경쟁자일 것 같다

지드래곤의 솔로 월드투어 결과 이상을 함께 들었다. 빅뱅의 월드투어에 비슷한 규모를 혼자 해내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지드래곤의 성공적인 활동은 빅뱅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 부럽기보다 좋다. 지드래곤은 내게 음악 외적으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친구다.

-데뷔 8년차를 맞았는데 목표는

거창한 목표보다 빅뱅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는 생각이 가장 크다. 빅뱅은 나의 뿌리이고, 나는 여러 가지 중 하나다. 빅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멤버들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있었을 때 멤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빅뱅 멤버 중 가장 바른 생활 이미지인데 욕구를 참고 지내나

모범생은 아니다. 속에 반항적인 성격이 가장 끓어오르는 멤버가 나다. 단지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할 뿐이다. 그래도 지금 진짜 해보고 싶은 건 사랑이다. 지금 필요한 시기다.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박고지

솔로곡 '링가링가' 발표 빅뱅 태양

또 고개드는 연예계 '11월 괴담'

이수근·탁재훈에 이어 토니안 등 불법도박혐의 조사

'11월 괴담'에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속설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1월에 유난히 사망, 폭행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불거지며 '11월 괴담'이란 말이 돌았다. 특히 11월부터 연말까지는 검찰과 경찰의 성과 평가와 인사고과가 이뤄지는 기간이기도 하다.

실적을 올려야 하는 검찰과 경찰이 이 시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일찍 발표할 수 있는 것도 11월쯤 알려지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11월 괴담을 뒷받침한다.

올해는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이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11월 또 다른 연예계 광풍이 불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수근·탁재훈의 불법도박 혐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맞대기 도박'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맞대기 도박으로 수억원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은 10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탁재훈은 이수근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아직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11월에는 가수 토니안(사진)과 앤디 등도 불법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스쿨스토어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안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몸담았던 스쿨스토어에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본인 소유 지분까지 정리가 끝났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타들의 줄소환 소식에 방송가는 일대 혼란에 휘싸일 전망이다.

연예계의 '11월 괴담'은 가수 유재하와 김현식이 각각 1987년과 1990년에 요절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듀스의 김성재도 1995년 11월 의문사했고, 2000년에는 클론의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었다. 이외에 연예인과 관련한 대형 사건 사고들이 이달에 유독 몰려들었다.

한편 앞서 김용만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기 방송인 신정환도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이다.

/정하은기자 yaa@metroseou.co.kr

에일리 누드사진 유포… "사기 당한 것"

누드 사진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에일리(사진) 측이 사진 유출 경위를 밝히며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에일리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11일 "해당 사진은 에일리가 미국 거주 당시 미국의 유명 속옷 모델 캐스팅 제의를 받아 카메라 테스트용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몸매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누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유명 속옷 모델의 테스트이기에 개인 신상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믿고 촬영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테스트 촬영을 마친 뒤 제의를 해온 측과 연락이 두절됐고 사기단의 소행으로 판명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경찰 신고 후에도 불안감에 시달리던 에일리는 엠어린 한류 매체인 올케이팝에 근무하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이 내용을 털어놓고 상의했으며, 심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 남자친구의 설득에 이 사진을 보내주게 됐다.

에일리 측은 "해당 사진의 유포자에게 개인신상보호법에 따른 불법 유포와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케이팝은 10일 '에일리일지도 모르는 여성 누드 사진 유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여러 장의 영상 캡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유순호기자

차태현·김종민 빼고 '1박2일' 멤버 바뀐다

KBS2 '해피선데이'의 장수 코너 '1박2일'이 시즌 3로 제2의 도약을 노린다.

KBS는 "'1박2일'이 제작진 변화에 이어 멤버 변화로 시즌 3 체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출연진 6명 중 배우 유해진, 엄태웅, 가수 성시경, 방송인 이수근 등 4명은 하차한다. 배우 차태현과 가수 겸 방송인 김종민은 시즌 3에 잔류한다.

유해진과 엄태웅은 영화 출연으로, 성시경은 음반 준비를 이유로 제작진과 협의 과정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다. 불법도박 혐의로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방송인 이수근은 자숙 차원에서 하차한다.

새로운 멤버와 관련해 KBS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수 존박, 밴드 장미여관의 육중완, 그룹 샤이니의 민호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기존 출연진 6명의 마지막 촬영은 8일 강원도 고성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여행이 담긴 시즌 2의 마지막 회는 24일 방송된다. /정성호기자

슈퍼주니어의 규현, 시원, 은혁, 강인이 옥스퍼드대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대서도 강단서도 슈주 빛났다

런던 '슈퍼쇼5' 1만 관객 열광… 옥스퍼드대 강연엔 400명 학생 참석

슈퍼주니어가 무대와 강단을 오가며 영국에 K-팝 강풍을 몰아쳤다.

이들은 10일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월드투어 '슈퍼쇼5'를 열고 영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각지에서 운집한 1만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다.

정규 5집 타이틀곡 '미스터 심플'로 공연의 막을 올린 슈퍼주니어는 '쏘리 쏘리', '미인아', '섹시 프리 & 싱글' 등 히트곡 무대는 물론 앨범 수록곡 무대, 유닛 무대, 분장쇼 등으로 채워진 총 23곡의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다채로운 음악과 화려한 무대 연출,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에 환호를 멈추지 않았다.

슈퍼주니어의 은혁, 규현, 강인, 시원은 공연 다음날인 11일 옥스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협회 및 한인 학생회의 초청으로 옥스퍼드대 유니온 디베이팅 챔버에서 '슈퍼주니어, 더 라스트 맨 스탠딩'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다.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글로벌 한류 열풍의 주역인 슈퍼주니어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유순호기자

star bag

브아걸 유닛 M&N 공개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첫 유닛 M&N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미료와 나르샤로 구성된 M&N은 11일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첫 싱글 '오늘밤'을 공개했다. 타이틀곡 '오늘밤'은 음원 공개 직후 각종 음원 실시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나르샤와 미료가 직접 작사한 가사에는 여자의 수줍은 고백을 담았다.

내년 앙코르 '글로벌 투어'

SBS 수목드라마 '상속자들'에 출연 중인 배우 이민호가 팬들의 요청으로 글로벌 투어 콘서트를 다시 연다.

이민호의 소속사는 11일 "글로벌 투어 콘서트 '마이 에브리씽' 앙코르 공연이 내년 1월 1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민호의 글로벌 투어 콘서트는 팬들을 위한 기념 음반을 낸 지난 5월부터 전 세계 8개 도시에서 열렸다.

데뷔 12년만에 라디오 DJ

배우 김지우가 데뷔 12년 만에 라디오 DJ에 도전한다.

그는 EBS FM '어른을 위한 동화'의 DJ로 발탁돼 11일부터 생방송 진행에 나섰다. 김지우가 정식 DJ로 라디오 부스에 앉게 된 것은 2001년 데뷔 이후 처음이다. '어른을 위한 동화'는 훈훈한 감동과 교훈이 있는 동화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오전 10시 방송된다.

'비밀' OST 직접 부른다

배우 지성이 KBS2 수목드라마 '비밀'의 OST를 직접 부른다.

13일 자정 공개 예정인 신곡 '폭풍의 언덕'은 그간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했던 책 '폭풍의 언덕'과 동명이라 눈길을 끈다. '비밀' OST는 에피 나비의 '불치병', 에일리의 '눈물이 많은 울지서', 이루의 '비밀', 구자명의 '그 사람' 등 공개되는 곡마다 큰 인기를 모았다.

檢, 이수근·탁재훈 불법 도박 혐의 포착

이수근, '1박2일' 등 방송 활동중단 예정

개그맨 이수근(사진 왼쪽)과 방송인 탁재훈(오른쪽)이 수억 원 대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10일 SBS 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수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수근은 프리미어리그 같은 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예상 승리팀을 고르는 방식을 통해 한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배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탁재훈도 수억 원대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이수근보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이수근 측은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탁재훈 측은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유명 연예인 여러 명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방송인 김용만이 비슷한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가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선영기자 [illegible]

'진품명품' 정상방송 재개

MC 교체 건으로 녹화 중단 파행을 빚었던 KBS1 'TV쇼 진품명품'이 10일 정상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새 MC로 발탁된 김동우(사진) KBS 아나운서가 전문 감정위원들, 김형자·윤문식·김지연 등 연예인 감정단과 함께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아나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공부하면서 어려분을 모시겠다. 열심히 할 테니 잘 부탁드린다"고 진행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말 윤인구 아나운서에서 김 아나운서로 MC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제작진과 사측의 의견 다툼으로 녹화가 불발돼 3일 방송이 결방됐다.

/박선영기자

tvN '응답하라 1994'가 성나정(고아라)의 미래 남편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가는 가운데 삼천포(김성균)·조윤진(민도희)·쓰레기(정우)·칠봉이(유연석)의 삼각관계도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안방은 지금 '응사앓이'중

'응사앓이'가 주말 안방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인기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9일 방송된 8회는 평균 시청률 7.1%, 순간 최고 시청률 8.6%를 기록했다.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전날 방송된 7회보다 평균 시청률 0.9%포인트, 최고 시청률 1.3%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응칠앓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며 복고 열풍을 일으켰던 전작 '응답하라 1997'이 마지막 회에서 자체 최고인 평균 7.6%와 순간 최고 9.5%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994'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만간 '1997'의 기록을 돌파할 전망이다.

남녀 10~40대 연령층에서 모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폭넓은 세대를 아울렀다.

이 중 여자 10대에서 최고 시청률이 11.1%까지 치솟아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 과거에 대한 향수만은 아님을 입증했다.

매회 자체시청률 경신
10대 여성팬들도 많아
:
정우·고아라 눈도장 쾅!
유연석 신드롬도 예고

◆스타 속속 탄생…광고계도 들썩

드라마의 인기로 연예계의 인물도 속속 탄생하고 있다.

극의 중심을 잡는 정우와 고아라가 이번 작품으로 연기력과 대중성을 확고히 알렸다.

8일 방송된 7회에서는 유연석이 짐승남과 로맨티가이를 오가는 이색 매력으로 칠봉이 신드롬을 예고했다. 그는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며 부드러운 이미지 속에 가려진 거친 남성미로 여성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김성균은 8회 방송 이후 '응사요정'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순수한 삼천포 총각을 연기하는 그는 몸이 불편한 조윤진(민도희)의 어머니를 보살피는 따뜻한 심성으로 조윤진은 물론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영화에서 주로 강제와 살인자 역으로 출연했던 그는 반전 매력으로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또 '응칠소녀'로 불리는 민도희는 극중 거친 이미지와 달리 일상의 귀여운 모습으로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 해태 역의 손호준은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와 절친한 고향 선후배 사이로 관심을 모았다.

/유순호기자 sunn@metroseoul.co.kr

'가왕' 조용필 문화훈장 받는다

가수 조용필(사진)이 올해 '가왕' 신드롬을 일으킨 데 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의 은관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조용필은 수많은 국민 애창곡을 발표해왔고 올해 발표한 19집 '헬로'를 통해 전 세대와 소통이 가능한 음악을 시도하면서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이끌어냈다.

18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는 조용필 외에 올해 코미디언 인생 60년을 맞이한 구봉서, 사회봉사와 문화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배우 안성기, 올해 은퇴 공연으로 55년간의 음악 인생을 마무리한 패티김이 은관훈장을 받는다.

보관문화훈장 수훈자는 김정수 작가, 성우 이계영으로 결정됐다. 대통령표창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 최헌,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영화감독 류승완, 배우 이정길, 선우용여, 연주자 김성조, 드라마 제작자 송병준 등이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은 배우 김갑수, 가수 이승환·김목경, 코미디언 최양락·김지선, 성우 박일, 연주자 배수연, 프로듀서 서수민 등 8명이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배우 장서희·신현준, 가수 이루·시크릿·씨스타, 코미디언 김준호, 모델 고은경 등 7명에게 돌아간다.

/유순호기자

'대기만성형' 30대 두 배우

서울예술단 박영수 조풍래

서울예술단 소속 뮤지컬배우 박영수(31·사진 왼쪽) 조풍래(30·오른쪽)가 요즘 뮤지컬계에서 나란히 주목받고 있다. 한 살 차이의 또래로 예술단 내에서 둘도 없는 '절친'인 이들은 뒤늦게 만개해 예술단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 푸른 눈 박연 나란히 출연

'윤동주 달을 쏘다'와 얼마 전 막 내린 '잃어버린 얼굴 1895'를 비롯해 서울예술단에서 올리는 작품마다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현재 가무극 '푸른 눈 박연'(~17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 함께 출연 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 서양인인 박연의 삶을 노래와 춤을 곁들여 코믹하게 재구성한 이번 작품에서 박영수는 순진무구한 바보 덕구 역을, 조풍래는 어린 훈련도감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멀티맨 3인 금은동 중 동 역을 연기해 웃음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은 예술단 내에서도 소문난 노력파다.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술단이 한국적인 소재의 작품을 주로 올리는 특성 탓에 매번 시험 준비하듯 역사책은 물론 야사까지 찾아 공부한다.

박영수는 "조풍래는 극에 대한 해석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예술단 내에서 '조각가'로 통해 나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물어본다"면서 조풍래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깊은 우정을 과시했다.

◆그들이 걸어온 길

이들이 처음부터 예술단원으로 출발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 박영수는 연극배우 출신이다. 연극배우

> 야사까지 찾아보는 노력파
> "조, 예술단 '조각가'로 통해
> 박, 수많은 여성팬들 보유"

들이 그렇듯 '그도 한때 배고픈 서러움을 겪다 2009년 뒤늦게 입단했다. 조풍래는 국내에 몇 명 되지 않는 봉산탈춤 전수자로 2010년 예술단에 들어왔다.

조풍래는 "예전에 전공을 선택할 적에 남들과 똑같은 게 싫어서 봉산탈춤을 택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는 탈춤을 연습한다. 탈춤과 뮤지컬이 달라 보이지만 통하는 부분이 있다. 무대 장악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사실 활약은 예술단 밖에서 더욱 돋보였다. 뮤지컬계의 삼성 으로 불릴 정도로 실력 있는 배우 승원이 모인 예술단 내에서 경쟁하며 탄탄하게 쌓은 내공 덕에 화제작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다.

'아르센 루팡' 쓰릴 미 데 캐어 해 많은 여성 팬층을 확보한 박영수는 현재 공연 중인 '요셉 어메이징'에서 주인공 요셉 역을 맡았으며 조풍래는 잃어버린 얼굴 1895 등을 통해 뮤지컬계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라 9월 개막한 '풍월주'에 남자 기생 열 역으로 발탁됐다.

밖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도 예술단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조풍래는 "단원들은 공연이 있든 없든 하루 종일 함께 모여서 연습한다"고 애정을 내비쳤다. 박영수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나 있고 싶다. 이곳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pak0427@metroseoul.co.kr

사진/서울예술단 제공

스릴러 미드·영드 3편 잇따라 선뵌다

'화이트 채플' 등 방송

케이블 채널 AXN이 스릴러 장르의 최신 시리즈들을 잇따라 선보인다.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50분 영국 드라마 '화이트 채플' 시즌 4를 방송한다. 영국 ITV에서 방송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모방범죄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17세기 마녀사냥은 매튜 홉킨스 사건, 딱사스 연쇄살인 사건이 다시 벌어진다. 시즌 4는 총 6부작으로 방송된다.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50분에는 미국 드라마 '오펀 블랙'이 방송된다. '오펀블랙'은 올해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작품상 연출상 미니시리즈 부문 등 3관왕을 차지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복제인간을 다룬 이 작품은 여주인공 사라 매닝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성의 자살 장면을 목격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총 10부작이다.

1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에는 미드 '컬트'(사진)가 전파를 탄다. 허구 속의 살인 사건을 쫓는 TV 드라마 '컬트'에 빠진 컬트 집단의 음모와 살인을 파헤치는 스릴러 장르 드라마다. 총 13부작이다.

한편 AXN은 신작 방송을 기념해 홈페이지(www.axntv.co.kr)에서 '박재범 서울콘서트', '뮤지컬 삼총사' 티켓을 제공하는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의묵기자 yaw@

엑소 카이·찬열·백현·수호 '멜론 뮤직 어워드' MC

'2013 멜론 뮤직 어워드'에 대중문화계 대표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배우 이유비와 함께 그룹 엑소가 시상식 공동 MC로 선정된 가운데 12명의 멤버 중 MC로 나설 멤버가 공개됐다. 각자 다른 끼와 재능으로 매력을 발산해온 카이 찬열 백현 수호가 MC로 나선다.

집준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배우 성준을 비롯해 섹시아이콘으로 등극한 클라라와 이태임,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 전소민·서하준 커플, tvN 'SNL 코리아'로 화제를 모은 김슬기, 버스커버스커 뮤직비디오를 통해 한국의 아오이 유우로 주목받은 손수현, 개그맨 김준호·김지민 등이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인순이와 신승훈, 박지영, 이현도, 주영훈 등이 시상자로 나와 후배 가수들의 수상을 축하한다.

'멜론 뮤직 어워드'는 올해 5회째로 1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장병호기자

"김희선은 전설적 아름다움 가진 배우" 배우 김희선이 이탈리아 보그 남성판인 로모 보그의 한국 특집에서 한복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한국 문화 예술계의 거장들이 등장한 이번 특집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배우로 택해진 그는 한복을 기본으로 세계적인 '가족' 패션과의 조화를 시도했다. 이탈리아 현지 측은 김희선을 '전설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배우'라고 칭했다.

/힌지엔터테인먼트 제공

▶ 이탈리아 미남들도 반할 미모지요? /박진영기자

수컷냄새가 더욱 진해졌다

거친 삶 살아온 세 남자에 초점 맞춰 울산 배경…영화 집중도는 떨어져

film review

■친구 2

14일 개봉될 영화 '친구2'는 12년 전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니가 가라, 하와이' 등의 명대사를 남기며 신드롬을 일으킨 장동건·유오성 주연의 '친구'의 17년 후 이야기를 그린 속편이다.

준석(유오성)이 전편에서 죽은 동수(장동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후 세상에 나와 조직에서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 주요 줄거리다.

전편이 부산을 배경으로 했다면 속편은 남성적인 도시인 울산을 무대로 해 더욱 진해진 누아르를 선사한다.

속편이지만 전편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곽경택 감독은 전편에선 제목 그대로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해 관객들에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게 했다면 속편은 각기 다른 세대에 거친 삶을 산 세 남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준석을 중심에 두면서 그의 아버지이자 1960년대 부산을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주먹 철주(주진모), 준석의 재건을 돕다가 뒤늦게 자신이 동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성훈(김우빈)의 이야기를 배치해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과거와 현재를 수시로 넘나든다. 세 인물들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이야깃거리는 보는 재미를 높인다.

배우들의 열연도 전편 못지않은 볼거리다. 17년 후의 준석처럼 어느 덧 중년이 된 유오성는 더욱 깊어진 연기로 '아직 죽지 않았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위험한 패기가 넘치는 청춘을 연기한 신예 김우빈도 새롭게 발견한 재목이다.

물론 '전편만 한 속편은 없다'는 속설에선 '친구2'도 자유롭지 않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한 탓에 영화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대사의 대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진한 경상도 사투리가 몇몇 장면에서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동수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래도 '친구'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관객이나 진한 한국형 누아르를 보고 싶은 관객이라면 볼 만한 작품이다. 청소년관람불가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잔혹 장면 빼도 너무 무서워"

'인시디어스2' 내달 개봉

제임스 완 감독의 신작 '인시디어스: 두 번째 집'(다음달 5일 개봉)으로 또 한 번 극장가를 공포 분위기로 물들인다.

제임스 완 감독은 올해 '컨저링'으로 북미 지역에서 1억 달러의 흥행 수입을 거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역대 공포 장르 외화 중 최다 관객(226만 명)을 동원했다. 이미 공포영화 팬들 사이에 "'컨저링'은 예고에 불과할 만큼 무서운 영화"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번째 집' 개봉을 앞두고 예고편만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잠에서 깨지 못하는 아들을 유체이탈로 데려온 후 기이한 현상을 겪는 가족과 그 집에 얽힌 비밀을 그린 영화로 국내 예고편은 잔인한 장면이 없음에도 너무 무섭다는 이유로 등급 심의에서 이례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다.

미국에서 9월에 개봉된 '~두 번째 집'은 개봉 당일에만 제작비의 4배에 달하는 20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첫 주말 수익은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에서 한 해 두 편의 영화를 공개해 개봉 첫 주 수익으로 4000만 달러 이상을 연속 기록한 감독은 2003년 '매트릭스' 시리즈 2·3편을 내놓은 워쇼스키 남매가 유일하다.

'~두 번째 집'은 2010년 개봉한 1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자 '컨저링'의 시작이 되는 내용이다. /유순호기자 suno@

메가박스 무비아카데미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제2회 메가박스 무비아카데미'를 16일 코엑스점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영화 관람 후 강연과 질의응답을 하며 영화 이면에 녹아 있는 요소와 흐름을 짚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영화, 연애를 담다-연/애/담'을 주제로 다음달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5차례 진행된다.

'8월의 크리스마스'(16일), '해피엔드'(23일), '봄날은 간다'(30일), '접속'(다음달 7일), '클래식'(다음달 14일) 등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개봉한 한국 멜로영화 대표작 5편이 상영된다. /유순호기자

심석희 월드컵 3관왕 한국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16·세화여고·왼쪽 둘째)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1000m에서 우승하며 3관왕에 올랐다. /AP 연합뉴스

빙속 삼총사 "소치★로 뜬다"

이승훈 5000m 한국신기록
모태범 500m 銀 '메달행진'
이상화 올림픽 2관왕 희망

밴쿠버 올림픽 3인방이 올림픽 2연패를 향해 계속 질주를 벌이고 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25)·모태범(24·이상 대한항공)·이상화(24·서울시청)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연일 신기록과 함께 메달을 수확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 시즌 첫 월드컵이다.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이승훈은 5000m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3년 만에 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훈은 11일 남자 5000m 디비전A(1부리그) 레이스에서 6분07초04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승훈의 기록은 2009년 12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월드컵 5차 대회에서 작성한 자신의 한국 기록(6분14초67)을 4년 만에 무려 7초63이나 앞당긴 성적이다.

왼쪽부터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은 스벤 크라머르(네덜란드·6분04초46)와 요리트 베르그스마(네덜란드·6분06초93)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남자 단거리의 간판스타인 모태범도 연속 메달 행진을 벌였다. 모태범은 이날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서 34초47의 기록으로 터커 프레드릭스(미국·34초46)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차 레이스에서도 2위(34초523)에 오른 모태범은 헬과 0.01초 뒤져 금메달을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첫날보다 기록을 0.05초 줄였다는 데서 희망을 찾았다.

'빙속 여제' 이상화는 1000m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쳤지만 여자 500m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근 1000m 페이스가 오르고 있어 올림픽 2연패와 함께 멀티 메달 획득도 노려볼 만 하다.

/정용훈기자 yew@metroseoul.co.kr

손흥민 "스위스 잡을 것"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국인 최초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세이셔널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사진)이 스위스전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은 "오랜만에 골이 터졌다. 어쩌다 보니 친정팀을 상대로 운 좋게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친정팀에)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스위스와 러시아는 유럽의 강호들이다. 스위스전은 홈에서 경기를 펼치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12일 정오에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국가대표 훈련을 시작한다.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스위스전, 19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치르는 러시아와의 평가전에서 연속 골을 노린다. /정선기기자

기성용 풀타임... 팀 승리 기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기성용(24·선덜랜드)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의 정규리그 두 번째 승리에 힘을 보탰다.

기성용은 11일 영국 선덜랜드의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의 홈경기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기성용의 활약에 대해 평점 7점을 부여했다. /정선기기자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한화 FA대어 잡기 '강공 드라이브'

한화는 2013 스토브리그의 큰손이다. 종지럼 꼴찌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한화는 이번 자유계약(FA) 시장을 전력 보강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에 쓰지 못한 류현진 자금을 모두 풀겠다는 생각이다. 과연 한화의 전력 보강은 성공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FA 신청자는 16명이다. 이 가운데 한화는 2명을 데려갈 수 있다. 한화의 눈은 최대어로 꼽히는 롯데 포수 강민호, KIA 외야수 이용규, 삼성 투수 장원삼, SK 내야수 정근우로 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조건 한 명을 영입할 생각이다.

한화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FA 시장의 또 다른 거품 요인이 될 듯하다. 한화가 돈가방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어급 FA 선수들의 몸값은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협상에서 주도권은 FA 선수들에게 있다. 모두 김주찬(50억원)은 훨씬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50억원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빅 4 선수들이 김주찬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기준선이 올라갔다. 선수들에게는 역대 최대의 잭팟을 터트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반대로 기존 구단들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거물급을 영입하든 실패하든 한화는 2013 FA 판도를 뒤흔드는 절대 변수다.

/OSEN 야구전문기자